불안의 시대에 절실한 '평온'의 미학



현존의 아름다움
최광천 지음 / 현암사 / 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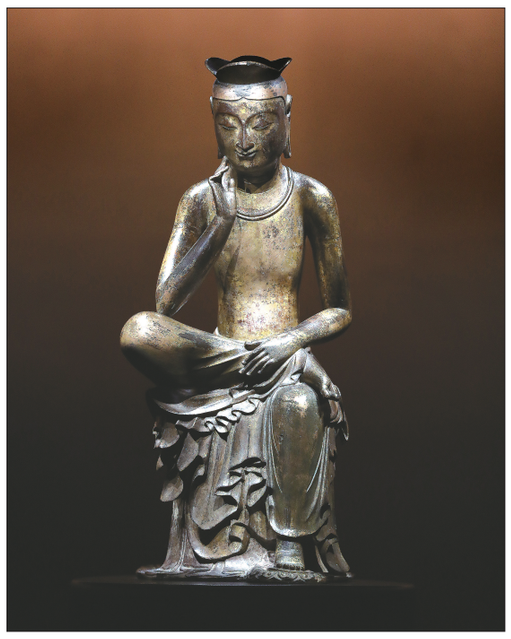
韓人의 미술로 구현한 평온의 미의식 조명
불교회화에서 평온미 어떻게 구현되었나
"한국의 4대 미의식, 현대사회 해결 백신"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에서 사유상은 단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고뇌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주적 진리를 깨닫는 순간의 정신적 희열을 표현해야 한다. 이처럼 깨달은 자의 깊은 사유와 정신적 희열을 과연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책 〈현존의 아름다움〉은 고대 불교조각에서부터 고려불화, 조선 문인화, 그리고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미술작품으로 구현한 평온의 미의식을 조명한다. 특히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다른 나라의 작품들과 비교를 통해 한국의 평온미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저자는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도 종교예술이 성행했지만, 불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평온의 경지를 조형적으로 한국만큼 잘 표현한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평온'이란 감정의 동요가 없는, 청정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바라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긴장감과, 이념과 종교, 물질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등 여러 가지 사회 요인들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로 늘 변화무쌍하다. 저자에 의하면 이런 사회일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평온의 미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책에서 제안하는 미의식으로서의 평온은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분주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요함이다. 하지만 이것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모두 제거하고 마음의 본성에 도달해야 비로소 가능하기에 종교와 명상에서 도달하고자 했던 경지이기도 하다. 저자는 직관과 영성이 발달한 한국인들은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적 이념을 형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기에 평온하고 정감 있는 예술품들을 남길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불교에서의 열반의 경지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반가사유상.

△1장 '고대 불교 조각의 평온미'에서는 고대 불교 조각을 통해 한국인들이 평온의 미의식을 어떻게 조형화했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든 반가사유상이나 석굴암 본존불, 마애석불, 오백나한상 등을 불교문화를 공유한 다른 나라의 조각품과 비교하여 그 미학적 차이를 규명했다.

△2장 '고려 불화의 평온미'에서는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고려시대의 불교회화에서 평온미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폈다.

△3장 '조선 문인화의 평온미'에서는 유교가 지배 이념이 된 조선시대의 문인화를 다루었다. 문인화는 외부 세계를 다루면서도 사실적인 묘사 대신 대상과 공명하여 얻은 기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정신적 평온함을 성취할 수 있었다. 여기서 소개한 관수도나 관월도, 탁족도, 조어도, 여가도, 오수도 등은 모두 평범한 일상에서 정신적 평온함을 구현한 작품들이다.

△4장 '현대미술로 구현된 평온미'에서는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평온의 미의식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장르별로 살펴보았다. 회화에서는 서민들의 선한 본성을 캔버스에 마애불처럼 새겨놓은 박수근을 다루었다. 조각에서는 고대에 제작된 불교의 반가사유상을 모범삼아 평온한 성모상을 제작한 최종태의 작품을 소개했다.

책은 저자가 15년 동안 집필한 '한국의 미학과 미의식'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다. 저자는 한국의 미학 1권 미의식 시리즈 4권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닌 우울한 불행감의 본질적 원인이 경제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미의식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신명' '해학' '소박' '평온'이라는 한국의 4대 미의식을 회복한다면 오늘날의 문화식민지에서 벗어나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얼마 전부터 케이팝에서 시작한 한류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미학적 바탕이 없는 한류는 모래성 같은 것이며, 그 한류의 완성은 다름 아닌 한국의 미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창조하려면 한국의 미학이 필요하고, 오늘날 혼탁하고 격동적인 삶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미의식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앞으로의 시대는 물건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로 경쟁하고 행복을 파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에 한국의 4대 미의식이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할 유용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잘 알지 못했던 한국미술의 가치를 되짚고, 사라져가는 우리의 미의식을 되살려 진정한 행복을 위한 '문화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를 제안한다.

佛法 성찰과 주석의 역사



불교철학 길라잡이
이규완 지음
운주사 / 2만원

책 〈불교철학 길라잡이〉(대원불교 학술총서 27)는 불교와 불교철학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다.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와 불교사상의 면모를 밝히고 있다.

불교에서 철학한다는 것은 '나의 등불로 밝히고,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철학은 바르게 보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지적 사유의 체험이다. 하지만 '있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된 앎이란 바르게 보는 것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의 설법에 의하면, 이 세계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물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만물 간의 관계 속에서만 세계가 현상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다. 즉 세계에 속하는 것은 어느 것도 실재하지 않으며, 만물은 모두 연기적 현상이다. 이것이 붓다가 본 '있는 그대로'의 세계이다. 붓다에게 '있는 것'은 '변화하는 현상'이고, '없는 것'은 '아트만', 즉 '불변하는 궁극의 실재'이다. 붓다에게 이런 '아트만'은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참된 진실이 아니다. 불교철학은 이 같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성찰이며, 2500여 년 이상 이어져 온 주석의 역사이다.

책에서는 붓다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주석의 지성사를 볼 수 있다.

한편, 불교라는 사유전통은 서로 다른 풍토에 뿌리내린 다양한 삶의 역사가 상호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됐다. 불교사상과 문화는 다채롭고 심오한 사유의 싹들이 자라 줄기와 가지를 뻗으며 이루어 낸 풍성한 나무이자 숲과 같다. 불교를 하나의 개념이나 사상체계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에 집착하는 태도로 불교를 판단하는 편협한 관점이다.

불교는 어떤 '본질주의'적 정의도 거부한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한한 조건들에 의존하여 발현한다는 불교의 진리에 대해 '불교'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과 정보와 지식이 교류하고 융합하고, 혹은 투쟁하면서 불교의 사상도 초기불교, 아비다르마의 다양한 학파들, 다르마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설일체유부, 존재와 인식 사이의 간극을 발견한 경량부, 만물은 연기적 현상이며 본질에서 텅 빈 공(空)이라고 논증한 중관, 세계는 단지 의식의 발현일 뿐이라는 유식, 동아시아의 천태와 화엄사상,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사상)을 나은 것이다.

책을 통해 25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쌓여온 주요 불교철학과 학파들의 핵심 주장들을 오늘의 언어로 만나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명상으로 고통·질병 치료



병원 명상
김종우 · 곽희용 지음
담앤북스 / 1만7천200원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이 치료를 쉬는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만성통증이 있는 사람이 진통제를 먹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명상'이 답이라는 책이 있다.

책 〈병원 명상〉은 국내외 유수의 병원에서 명상으로 환자의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는 사례와 그 효과를 보여주고, 환자가 증상별·단계별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수행법을 소개한다. 강동경희대병원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이자 한국명상학회 이사장인 김종우 교수와 한의원에서 환자 치유에 명상을 활용하고 있는 곽희용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의료 현장에서 마주한 임상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상 치료'의 세계로 안내한다.

책에서는 병원에서 명상을 치료법으로 받아들이게 된 근거와 역사, 국내외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명상 연구 성과를 짚고, 뇌과학과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

암 · 정신 장애 · 만성 통증 환자 위한
증상별 · 단계별 추천 명상법 소개

있는 명상법을 추천한다. 특히 암, 정신 장애, 만성통증의 치료에 명상이 활용되는 구체적 사례와 환자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 그리고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명상과 기공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1부 '명상치료'에서는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명상을 치료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게 된 근거와 역사, 국내외 현황을 살펴본다.

△2부 '과학으로 명상하기'에서는 뇌과학과 심리학에서의 명상 연구 성과를 짚어보고 뇌과학과 심리학을 이해하면서 수행하는 명상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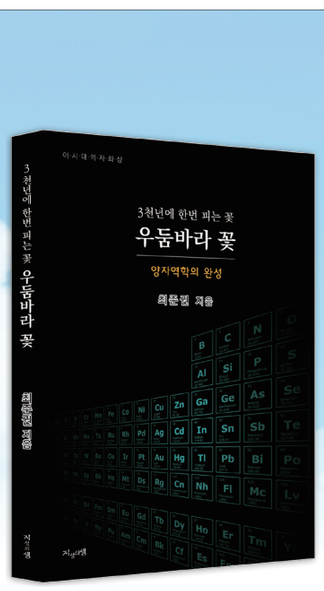
△3부 '병원에서 명상하기'에서는 암, 정신 장애, 만성 통증의 치료에 명상이 활용되는 사례와 환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상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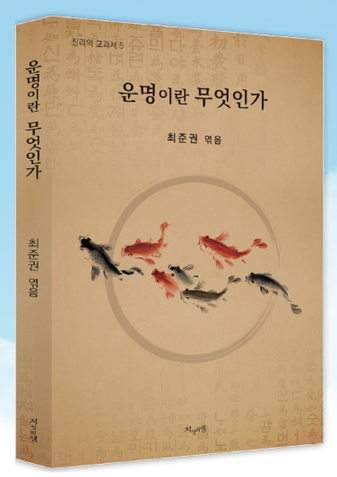
△4부 '한의학으로 명상하기'에서는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명상과 기공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5부 '한국 명상을 환자에게'에서는 명상의 과학화·대중화 과정에서 종교적 특성이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짚고, 간화선 등 한국 불교의 치유적 특성을 담은 명상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자생력을 키우면 고통이 줄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이 책이 명상을 통해 의사와 환자 모두 질병 치료의 중심이 되고 적극적인 주도자가 되는 안내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3천년에 한번 피는 꽃
우둠바라꽃/양자역학의 완성
이 세상은 그물망처럼 심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과거 100년 이상을 풀지 못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풀 수 있었을까
최준권 지음/신국판/무선/272쪽/값16,000원

자아를 되찾고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길
운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며 변화를 통해 윤회하고 있다. 넓은 눈으로 창조와 진화를 관찰하면 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준권 엮음/신국판/무선/264쪽/값16,000원

부처님의 말씀으로 엮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의 가르침
3천년 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극락에서 머무시던 부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받아 왕자로 태어나셨다.
최준권 엮음/ 신국판/무선/256쪽 / 값16,000원

지성의샘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6-11 / TEL. 02-2285-0711 / FAX. 02-338-2722 / 이메일 gonggamsa@hanmail.net